

## 욕구-현실 충돌 상황에서의 주체성의 역할\*

김 세 현<sup>1)</sup>

허 태 균<sup>†</sup>


본 연구는 한국인이 보이는 욕구-현실 충돌에서 나타나는 극복 노력 현상(불굴의 의지)을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현실 간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체성 정도에 따라 그 상황을 대하는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 217명의 참여자가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156명의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참여자는 주체성 척도에 응답한 뒤, 상충적 요소가 존재하는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노출되었다. 시나리오는 집 구매와 결혼식장 계약 시나리오였고, 각 시나리오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개의 가치가 시장에서 서로 상충되도록 설정되었다. 참여자는 해당 시나리오를 읽고 각 가치에 대해 스스로가 원하는 수준을 입력하였다. 그 뒤, 시나리오 속 대리인이 참여자가 원하는 수준의 후보지를 찾지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이후, 참여자는 스스로 자신이 직접 나서 추가적인 노력을 할 의향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의 주체성 정도는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현실 한계를 초과하여 원하는 수준(기대 불일치)의 정도는 주체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해 비선형(역 U형)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나아가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체성이 낮은 개인은 기대 불일치 정도와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체성이 높은 개인은 기대 불일치 정도와 종속변인 간의 비선형 관계가 유의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욕구-현실 충돌 장면에서의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주체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주체성, 욕구-현실 충돌, 기대 불일치, 추가적인 노력 행동, 불굴의 의지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고려대학교

† 교신저자 :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E-mail : tkhur@korea.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전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토에서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어 짧은 시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서진우, 2023; 어기선, 2023). 혁신적인 성장에는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거나 추출해내고, 사업을 시작할 때의 위험과 장애물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업가 정신(Alvarez & Busenitz, 2001; Diachon & Anderson, 2011; Gaddefors & Anderson, 2019)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 하면 된다는 정신, 불가능을 극복하는 자세 등, 불굴의 정신을 강조해왔다(예. 권태신, 2015; 김기찬, 2017; 김숙중, 2020; 매거진 한경, 2006). 한국인의 노력 특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김정은 등, 2018)에서는 한국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강박적 그릿( grit)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그릿과 달리, 강박적 그릿은 열정 활동을 좋아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적인 열정을 중심으로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노력하지 않거나 노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죄책감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 강박적 그릿이 높다는 점은 곧 한국인에게 노력이 사회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것을 넘어,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게끔 한다.

이와 같이 불가능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는 한국 역사에 온전히 녹아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해방운동(예. 이현희, 1981; 정병준, 2006), 경제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예. 소진광, 2007; 좌승희, 2021), 경제 국난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예. 이영임, 1998; 천혜정, 2017)은 물론이고, 최근에 발생했던 전

염병 바이러스 또한 굳은 의지로 헤쳐 나가 결국 종식 선언을 하였다(심희진, 2023). 한국인의 역사에는 다들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성실함과 의지로 해결한 경험이 충만하다. 대다수의 이러한 역사적 결과는 한국인의 희망, 소망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혀나가면서 이루어졌다. 특히, 자신의 희망이나 소망과 같은 욕망의 영역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둘 간의 차이를 좁혀왔다. 즉, 성실성, 의지, 노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한국인이 가진 욕구와 현실 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8; 최상진, 정태연, 2001). 이러한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은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문화적으로 응축된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반응 양식이라는 점(LeVine, 2001)을 비추어봤을 때, 어떤 집단의 문화적, 역사적 경험은 구성원의 심리적 특성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독특한 해소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현실은 개인이 희망하고 바라는 정도를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 정신역동학적 관점에서 프로이드는 한 개인의 자아(ego)가 욕구만을 쫓는 원초아(id)와 규범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초자아(super-ego) 간의 갈등을 현실 원리에 의거하여 해소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았다(Brandell & Perlman, 1997). 모든 사람은 욕구의 형태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다양한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쌀 수도 있고, 현

재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으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대안이 시장에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중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자신이 처한 현실 한계를 넘어 둘 간의 괴리가 생길 때 심적 갈등을 겪게 된다. 기대-현실 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목표-수행 불일치(goal-performance discrepancy)와 유사하다. 목표는 개인의 희망, 소망 등이 담긴 욕구의 결정체이고, 수행은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수행 결과가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불일치하는 부정적 불일치(negative discrepancy)는 향후 과정에서 개인의 수행 노력을 높이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목표-수행 불일치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과 현실적인 수행 결과 간의 불일치가 향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목표와 수행의 불일치는 자신의 낮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Bandura와 Cervone(1983)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거나 피드백만을 주는 것보다 현실 정보와 비교되는 자신의 낮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높은 수준의 추가적 노력을 이끌어냄을 밝혔다. 반면, 장기 혹은 단기 목표보다 낮은 성과를 나타낸 사람이 현재 상태에 맞게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Donovan & Williams, 1999, 2003).

이에 비추어보면, 개인의 욕구와 현실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우선, 효과적이고 쉬운 해결 방안은 자신의 욕구를 양보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현실 한계에 맞춰 낮은 수준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손쉽게 현실에 적합한 욕구

충족을 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해결방안은 현실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욕구에 맞게 현실 한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가용 비용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끊임없는 정보 탐색을 통해 시장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현실 한계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인은 두 가지 해결방안 중 후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해결방안을 더 올바르게 적절한 것으로 여긴다(예. 권태신, 2015). 즉, 현실의 한계로 인해 욕구 충족에 실패하는 상황에서 욕구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불굴의 정신이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욕구-현실 충돌 장면에서의 대처 전략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 한계로 인해 자신의 기대 수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려는 의도를 측정함으로써 한국인이 보이는 불굴의 의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욕구와 현실 간의 충돌 장면에서의 두 가지 해소 방안은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정되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해소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해소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정신역동이론에 따르면, 욕구와 현실 한계 간의 조정과정은 의식적 주체인 자아(ego)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자아는 현실원리에 따라 개인의 기대 수준을 낮추거나, 현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등의 조정 전략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다양한 장면에서 자아(ego)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한 결과물은 곧 개인의 성격적 특성 혹은 문화적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은 다양한 장면에서의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학습한 결과물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욕구나 기대에 어긋나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의 한국인이 보이는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화적 특성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중 개인의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주체성(허태균, 2015; 허태균 등, 2012; Benavidas et al., 2020)이 대표적이다. 허태균 등(2012)은 한국인이 나타내는 특유한 사고 양식과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허태균(2015)은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나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주체성은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으로 영향력 욕구와 자기 신뢰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Benavidas et al., 2020). 영향력 욕구는 대인관계 내에서 어떤 개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발산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자기 신뢰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우선시하는 특성을 반영한다. 종합하면, 주체성은 강한 자신의 내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주체성의 특성은 개인주의 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예, Green et al., 2005; Triandis et al., 1988). 특히, 자기 신뢰(self-reliance)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주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Blatt et al.,

1982; Clark et al., 1992)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이다(Kalberg, 2015; Prentice & Carranza, 2002). 그러나 자기 신뢰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문화 차이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자기 신뢰의 경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구성개념과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Triandis et al., 1993). 실제로 Niles(1998)는 호주(개인주의 문화권)와 스리랑카(집단주의 문화권)를 비교했을 때, 두 문화권에서 모두 자기 신뢰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신뢰가 개인주의 문화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보다는 각 문화권에 따라 자기 신뢰의 구성 개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수 부족인 체로키(Cherokee)족은 자기 신뢰를 체로키의 종합론적 세계관(holistic world view) 내에서 체로키 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Stuart, 1993). Lowe(2003)는 민족지학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체로키 족의 자기 신뢰의 구성 개념을 책임감(being responsible), 자기 통제(being disciplined), 자신감(being confident)을 갖는 것을 중심으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스스로에게 진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자기 신뢰를 한국 문화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허태균 등(2012)은 다수의 문헌을 포함한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문화적 속성을 추출한 뒤,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구조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체성을 도출하였고, 주체성 내 하위요인인 자기 신뢰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 스스로 사고하여 내린 결정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의 자기 결정성(self-determination; Catalano et al., 2002)이 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특성임을 의미한다. 또한 또 다른 하위요인인 영향력 욕구는 주체성 자기(agentic self; 이누미야 등, 2007)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누미야 등(2007)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자기관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유사하나 관계 내 역동의 방향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누미야 등(2007)은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문화적 자기관을 확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율성 자기는 기존의 서구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에 가까우나, 타인과의 역동의 주요 방향에 따라 기존의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구분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은 관계 내 역동성을 발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주체성 자기관이, 일본인은 관계 내 역동성을 수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대상성 자기관이 주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주체성의 영향력 욕구는 한국인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주체성은 높은 수준의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강하게 외부에 분출할 수 있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이다. 이는 한국인이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해석할 때, 자신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이를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꺾이지 않는 노력과 성실함이 발현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체성 특성이 높을수록 개

인의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1.** 주체성이 높을수록 추가적인 노력 정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실 한계로 인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개인의 문화적 특성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그보다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개인-상황 상호작용; Funder,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특성으로서 현실 상황과 개인의 기대 간의 괴리의 정도를 고려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현실 수준에 대비한 개인의 기대 크기가 향후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andura & Cervone, 1983; Donovan & Williams, 1999, 2003; Williams et al., 2000). 그러나 개인의 기대와 현실 한계의 불일치 정도가 향후 노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방향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성장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비교(Taylor & Lobel, 1989)는 분명히 일정 부분까지는 강한 동력을 불러올 수 있지만(Diel & Hofmann, 2019), 상황 비교의 크기와 향후 행동 간의 관계는 비선형임이 밝혀졌다(Diel et al., 2021). Diel 등(2021)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 비교의 정도와 방향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그들의 동기와 정서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비교 결과에 따른 불일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투입하는 정도(pushing)가 상황 비교의 정도와 비선형 관계임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황 비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노력을 투입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지만, 일정 크기를 벗어나면, 둘 간의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나는 역 U형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와 노력 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될 수 있다. 직관적으로도 욕구와 현실의 괴리가 커짐에 따라 노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그 괴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노력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결정이 현실 상황에 대비한 자신의 욕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현실과 욕구의 차이의 크기와 추가적인 노력의 관계는 비선형 관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2.** 기대 불일치 정도는 추가적인 노력 정도와 역 U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개인-상황 상호작용 관점과 더불어 기존 연구(Diel et al., 2021)에 비추어봤을 때,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해 기대 불일치 정도와 주체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Diel 등(2021)은 상황 동기 수준과 노력 투입 정도 간의 비선형 관계가 개인의 통제 역량이나 중요성 정도에 따라 조절됨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 역량이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할 때는 상황 비교의 크기와 노력 정도가 비선형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비선형의 관계가 수평선에 가까워졌다. 이에 비추어보았을 때,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한 기대 불일치의 비선형적 효과도 개인의 주체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체성이 높은

사람은 기대 불일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노력 간의 관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주체성이 낮은 사람은 기대 불일치 정도와 추가적인 노력 정도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설 3.**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해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 정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1.** 주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대 불일치 정도와 추가적인 노력 정도 간의 비선형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주체성이 낮은 경우에는 둘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한국 국적의 성인 남녀 참가자가 모집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연구 목적을 포함한 간략한 연구 안내문을 제공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먼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한 뒤, 가상의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노출되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참가자들은 서면을 통해 사후설명을 제공 받았고, 자료 이용에 동의하였다. 모집된 연구 참가자는 총 217명이었으나, 분석 기준 미충족, 한 줄 세우기, 지나치게 짧거나 긴 응답시간 등의 이유로 61명을 제외한 156명(여성 11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검증에 적절한 분석을

위한 기준<sup>1)</sup>에 어긋났거나, 응답시간, 응답패턴에 문제가 드러난 참여자를 불성실 응답자로 고려하여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4.4세(표준편차 7.43, 범위 20세~48세)이었다.

### 측정 도구 및 의사결정 시나리오

#### 주체성 척도

개인의 주체성 특성은 관계적 주체성 척도 (relational agency scale; Benavidas et al., 202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이고, 영향력 욕구와 자기 주도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이 각각 7문항씩을 포함한다. 영향력 욕구의 예시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뜻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뛰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이고, 자기 주도성의 예시 문항은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 상황을 바꿔볼 여지는 있다”, “난 주어진 해결책만큼이나 내 스스로 생각해낸 해결책이 중요하다” 등이 있다. 측정은 10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10 = 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도 내적 일치도는 .90으로 안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4문항을 모두 평균 내어 개인의 주체성 특성 점수로 활용하였다.

#### 의사결정 시나리오 및 주요 변인 측정 방법

한국인이 보이는 불굴의 의지를 실생활적인 장면에서 도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보편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큰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노력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총 두 개의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노출되었고 시나리오 내 주인공이라고 상상하면서 각 시나리오를 읽었다. 첫 번째는 집 구매 시나리오이고, 두 번째는 결혼식장 계약 시나리오였다. 각 시나리오 내에는 두 가지 특성(집 구매; 주변 환경 vs. 시설 수준, 결혼식장; 접근성 vs. 음식 수준)을 서로 상충되게 가진 세 가지 유형의 후보지가 존재했다. 또한 모든 후보지는 두 가지 특성의 합이 140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집 구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열심히 돈을 모은 당신은 드디어 자가를 매매하여,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삼 일간 당신의 예산에 맞는 주거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은 곧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주거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유형은 다른 조건(비용, 위치, 예상 관리비 등)은 모두 동일한 수준이었고, 공간 시설의 만족도와 주변 지역 만족도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간 시설은 집 구조, 주거 내부 상태, 빌트인 가전 시설 등을 의미하고, 주변 지

1)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은 현 시장 상황보다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있었고, 참여자는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된 것으로 상상하며 글을 읽도록 지시받았다. 그런데 참여자가 기대치를 자유 응답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시나리오에 제된 시장 상황에서의 가치의 합이 140임에도 불구하고, 위 경우의 대다수는 두 가치의 합이 100으로 맞춰져 있었다. 이는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읽지 않고 통념적으로 두 가치의 합을 100으로 맞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답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개인의 욕구가 현실보다 높아서 생기는 충돌에서의 행동 양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역은 지역 기반 시설, 편의 시설, 치안 정도 등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집의 공간 시설 수준과 주변 지역 수준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 시설 수준	주변 지역 수준		공간 시설 수준	주변 지역 수준		공간 시설 수준	주변 지역 수준
A	50/ 100	90/ 100	B	70/ 100	70/ 100	C	90/ 100	50/ 100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처음 제시된 후보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계약 대리자(집 구매; 부동산 중개인, 결혼식장 계약, 웨딩 플래너)는 원하는 조건의 수준을 제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참여자는 두 가지 특성에 대해 각자가 원하는 수준을 100점 척도로 자유롭게 응답하였다. 연구자는 각 시나리오에서 참여자가 응답한 두 가지 특성의 점수를 기준으로 참여자의 기대 정도가 현실 상황에서 떨어진 정도( $d$ )를 도출하였다(참고. 김세현, 2023). 구체적으로 두 특성의 점수를 합한 뒤 140을 감산하고,  $\sqrt{2}$ 로 나누어 현실 상황의 추세( $x+y-140=0$ )에서 떨어진 거리를 구하였다,  $d = |x_1 + y_1 - 140| / \sqrt{2}$ .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점수를 평균 내어, 참여자가 가진 기대 불일치 수준 값을 도출하였다. 실제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은 중개인에게 근처 지역에 있는 다른 주거지들도 찾아봐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자는 계약을 위한 다른 조건들은 당신이 어떤 수준을 원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시설이나 주변 지역에 대해 원하는 수준을 10점 만점의 점수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뒤에 계약 대리자는 참여자가 원하는 수준을 가진 후보지를 찾지 못했으니, 기존의 후보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모든 시나리오를 읽은 뒤, 추가적인 노력 의향 정도를 묻는 문항(부동산; “추가로 노력을 더 들이거나 다른 부동산 업자를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식장; “추가로 노력을 더 들이거나 다른 웨딩 플래너를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에 10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때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받은 응답을 평균 내어 참여자의 추가적인 노력 정도 점수를 도출하였다. 참여자가 제시 받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일주일 뒤, 부동산 업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앞서 보여준 세 가지 유형의 주거지들 수준 이상의 후보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며, 그냥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JAMOVİ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종속변인과 주요 변인 간 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계약 대리자 평가와 추가적인 노력 의향 정도에 대한 기대 불일치 정도와 주체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차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대 불일치 정도의 비선형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기존 연구(유태용, 최정



락, 2012; Weisberg, 2005)를 참고하여 변곡점을 계산하였다.

일치의 영향력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본 분석에 앞서, 계약 대리자 평가, 추가적인 노력 정도, 기대 불일치 정도, 주체성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와 성별은 어떠한 변인 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변인이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에서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주체성과 기대불일치 정도 간의 정적 상관과 주체성과 추가적인 노력 정도 간의 정적 상관이 도출되었다(가설 1; 표 1 참고). 즉, 주체성이 높을수록 기대 불일치 정도가 높고, 나아가 추가적인 노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체성이 욕구 갈등 상황에서 기대 불일치 정도에 따라 어떤 심리적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내는지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욕구 갈등 상황에서 기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의 심리적 평가와 추가 노력 정도에 대해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 정도의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계약 대리자 평가와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한 위계적 다차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유태용, 최정락, 2012)와 유사하게, 증분 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종속변인에 대한 기대 불일치의 비선형적 영향력과 주체성의 상호작용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의 1단계 모형에는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인 주체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 모형에는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대 불일치 정도를, 3단계 모형에는 기대 불일치의 제곱항을, 4단계 모형에는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본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입력(enter)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종속변인이 추가적인 노력 정도의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한 주체성과 기대 불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n=156$ )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성별	-	-	-			
2. 연령	34.40	7.43	-.18*	-		
3. 주체성	6.37	1.40	-.11	.12	-	
4. 기대 불일치	20.40	10.90	-.04	.13	.23**	-
5. 추가적인 노력 정도	7.64	1.40	-.07	.11	.37***	.10

주. 성별; 남(1), 여(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한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의 효과

모형	변인	<i>B</i>	<i>SE</i>	$\beta$	<i>p</i>	<i>R</i> <sup>2</sup>	$\Delta R^2$	$\Delta F$ ( <i>p</i> )	<i>F</i> ( <i>p</i> )
1	(상수)	7.64	0.11		< .001	0.13	-	-	23.86 (< .001)
	주체성	0.51	0.11	.37	< .001				
2	(상수)	7.64	0.11		< .001	0.13	.000	0.03 (.864)	11.87 (< .001)
	주체성	0.51	0.11	.36	< .001				
	기대 불일치	0.02	0.11	.01	.864				
3	(상수)	7.79	0.12		< .001	0.16	0.03	5.02 (.026)	9.80 (< .001)
	주체성	0.53	0.11	.38	< .001				
	기대 불일치	0.22	0.14	.15	.121				
	기대 불일치 <sup>2</sup>	-0.14	0.06	-.10	.026				
4	(상수)	7.76	0.12		< .001	0.20	0.04	3.36 (.038)	7.40 (< .001)
	주체성	0.65	0.12	.46	< .001				
	기대 불일치	0.25	0.14	.18	.067				
	기대 불일치 <sup>2</sup>	-0.13	0.07	-.09	.071				
	주체성 ×기대불일치	0.32	0.14	.23	.026				
	주체성 ×기대불일치 <sup>2</sup>	-0.14	0.06	-.10	.014				

주, 기대 불일치의 변곡점은 0.50(z-score)임(참고. Weisberg, 2005).

주체성은 추가적인 노력 정도 변량의 13%를 설명하였고(1단계 모형:  $F_{(1, 154)}=23.86$ ,  $p<.001$ ), 기대 불일치 정도는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했다(2단계 모형:  $\Delta F_{(1, 153)}=0.03$ ,  $p=.864$ ). 그러나 기대 불일치 정도의 제곱 항을 추가한 모형은 추가적인 노력 정도 변량의 3%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3단계 모형:  $\Delta F_{(1, 152)}=5.02$ ,  $p=.026$ ). 이를 통해 기대 불일치 정도는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비선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의 비

선형 효과의 상호작용은 종속변인의 변량을 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여(4단계 모형:  $\Delta F_{(1, 152)}=3.36$ ,  $p=.038$ ),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F_{(5, 150)}=7.40$ ,  $p<.001$ ).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한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체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다(1단계 모형에서,  $\beta=.37$ ,  $p<.001$ ). 즉, 개인의 주체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추가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함을 의미한다(가설 1 지지). 또한 개인의 욕구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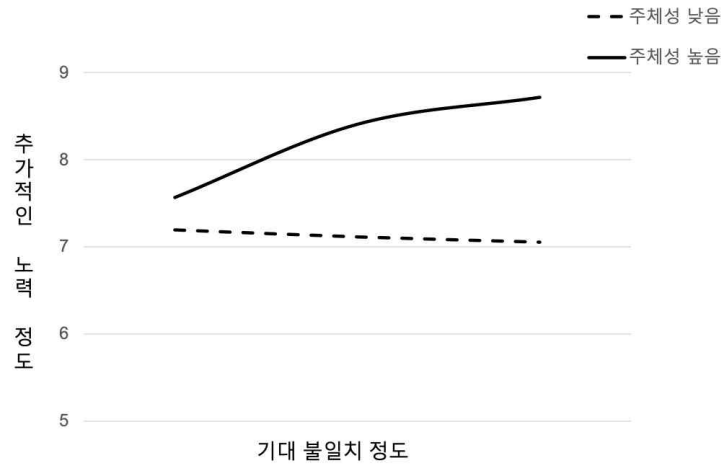


그림 1.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한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 간 상호작용효과

도와 추가적인 노력 정도 사이에는 비선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가설2 지지; 3단계 모형에서,  $\beta=-.10$ ,  $p=.026$ ). 이는 둘 간의 비선형적 관계가 역 U자 형태임을 나타낸다. 보다 중요하게,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가설 3 지지; 4단계 모형에서,  $\beta=.23$ ,  $p=.026$ ,  $\beta=-.10$ ,  $p=.014$ ). 즉, 주체성이 높은 사람은 그들의 기대 불일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노력 정도가 높아지다가 완만해지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주체성이 낮은 사람은 기대 불일치 정도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그림 1 참고).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체성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체성이 낮은 경우에는 기대 불일치 정도와 추가적인 노력 간의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beta=-.05$ ,  $t_{(150)}=-0.36$ ,  $p=.719$ ), 주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대 불일치와 추가적인 노력 간의 정적 관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역 U 모양의 비선형 관계가 나타났다( $\beta=.41$ ,  $t_{(150)}=2.80$ ,  $p=.006$ , 변곡점(z) = 1.06).

## 논 의

본 연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한국인이 보여준 노력과 성실성, 불가능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의지에 대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인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욕구 수준을 낮추기보다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해소 전략을 선호하고 추구해왔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독특한 행동 양식은 한국이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는데 기반이 되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인 주체성(허태균, 2015; 허태균 등, 2012)이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임이 확인되었다. 주체성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장 중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맥락에서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계가 깊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체성이 높은 개인은 주체성이 낮은 개인에 비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실 상황에 대비한 개인의 기대 수준은 추가적인 노력 정도와 역 U형의 비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개인의 기대 수준이 높음에 따라 현실 상황과 불일치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추가적인 노력 정도가 선형적인 형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 수준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노력 정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기대 불일치 정도와 주체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는 주체성이 자신의 기대가 불일치 할 때, 추가적인 노력을 최대한 투입하게끔 하는 심리적 특성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체성이 높은 개인은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 정도에 따라 최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주체성이 낮은 개인은 욕구와 현실의 괴리 정도(기대 불일치 정도)와 추가적인 노력 정도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적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주체성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현실 간의 차이가 크다고 느껴질수록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려는 의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주체성이 높은 개인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체성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중시하는 태도(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감을 내비치고, 타인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산(영향력 욕구)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이다(Benavidas et al., 2020; 허태균, 2015; 허태균 등, 2012).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의 주체성 특성 점수는 높은 수준( $M = 6.37$ )이었고, 척도의 중간 점수(5.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_{(155)} = 7.78,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주체성이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잘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체성의 개념적 특성에 비추어봤을 때, 주체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관 분석을 통해 개인의 주체성 수준과 추가적인 노력 수준 간의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개인의 주체성 정도가 높을수록 현실 한계로 인해 자신의 기대 혹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주체성이 높은 개인은 현실 한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닦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에 있어서 주체성의 역할이 주요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문화적 특성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개인-상황 상호작용(person-situation interaction)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의 욕구 혹은 기대 수준이 현실 상황과 불일치하는 정도를 상황적 특성으로 두고, 이것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인 주체성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우선, 개인의 욕구와 현실 한계의 차이 정도(기대 불일치)는 추가적인 노력 정도와 비선형 관계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기대 불일치의 역U자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수행 정도를 더 나은 결과와 비교하는 상황 비교가 추후 노력을 이끌어내는 성장 동기로 이어질 수 있으나(예. Diel & Hofmann, 2019; Taylor & Lobel, 1989), 그 경향성이 일정하게

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U자의 비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선행 연구(Diel et al., 2021)와 같은 맥락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욕구와 현실 한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노력을 하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노력 정도를 줄이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해 개인적 특성(주체성)과 상황적 특성(기대 불일치)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주체성 수준에 따라 기대 불일치 수준과 추가적인 노력 정도 간의 관계가 달라졌다. 주체성이 높은 개인은 기대 불일치 수준이 어느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추가적인 노력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지만, 주체성이 낮은 개인은 기대 불일치 수준과 추가적인 노력 정도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주체성이 기대 불일치 수준이 매우 크게 나타나지 않는 수준(변곡점( $z$ ) = 1.06; 35.54%)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게끔 만드는 개인의 문화적 특성임을 시사한다. 상호작용효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 연구 분석에서는 주체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기대 불일치 정도와 추가적인 노력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기대 불일치 수준에 따라 주체성과 추가적인 노력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기대 불일치 수준이 높을 때는 주체성과 추가적인 노력 간의 관계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eta=.60$ ,  $t_{(150)}=4.88$ ,  $p<.001$ ), 기대 불일치 수준이 낮을 때는 둘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beta=.14$ ,  $t_{(150)}=1.03$ ,  $p=.306$ . 즉, 추가적인 노력을 불러올 수 있는 주체성의 효과는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커서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고 여겨

질 때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이 크게 지각될 때, 노력과 투자를 강조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인 주체성의 기능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 힘들 때 보이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 노력 행동 등에 대한 주체성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주체성이 강한 한국인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내리는 판단을 최우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현실 한계에 의해 자신의 욕구나 기대가 당장에 좌절되더라도,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체성으로 인해 한국인이 보인 성실과 노력은 역사적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 위기로 인한 IMF의 관리를 받던 시기에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 내에 경제를 회복하였다. 또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에도 전 국민의 노력을 통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각 중 국가적 위기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저력, 한국인의 혼과 열을 강조할 때가 많다. 국가의 경제, 산업, 환경 등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인은 자신의 욕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했을 것이다. 현실과 욕구 간의 불일치가 인식되었을 때, 한국인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주체성은 이와 같은 국난 극복의 역사를 이뤘은 한국인의 심리적 특

성을 대표한다. 즉, 주체성은 현실과 욕구 간의 불일치가 어느 수준까지 존재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을 대변한다.

문화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는 응집, 복종,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고, 사회적 관계에 상호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정은, 2019; Hofstede, 2011; Mo & Park, 2023; Traindis et al., 1988; Zhang et al., 2005). 이러한 점은 개성과 독특성을 중시하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경향을 보이는 서양 문화와의 다른 점으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Chao & Tseng, 2002). 이로 인해 동양 문화는 개인의 신념과 목표를 희생하면서까지 집단에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문화적 독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Cho & Yoon, 2001). 나아가 개인의 동기를 설명하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주요 하위요인인 자율성에 대한 문화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Iyengar & DeVoe, 2003; Iyengar & Lepper, 2002). 이는 자율성이 높은 수준의 자기 의지(self-validation)와 선택감(sense of choice)을 바탕으로 자기 행동이 심리적 내부와 일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동양 문화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의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각 문화권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동양 문화에서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헌신을 하거나 개인의 개성과 신념을 경시하는 현상을 그다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자율성(autonomy)에 관한 문화차 연구(Nalipay et al., 2020)는 이와 같은 학술적 논리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잘 나타낸다. Nalipay 등(2020)은 대규모의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

취에 대한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 요인이 가진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서양 문화 동일하게, 자율성은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Jang et al., 2009)이나 중국인(Zhou et al., 2009)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비추어봤을 때, 주체성은 자율성과 유능성의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인 주체성은 성취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불러올 수 있는 주요한 심리적 특성임을 의미한다.

기존의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문화권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양식의 차이에 대한 지식이 누적되고 있지만,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틀에 의거하여,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쉽게 재단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관찰되는 한국인의 행동 양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인 주체성이 욕구와 현실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 갖는 역할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나리오라는 다소 제한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 주체성의 역할과 기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두 가지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맥락 효과를 최대한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의 경제 상태, 현실 시장에 대한 개인의 지식 등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한국인이 보이는 불굴의 의지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활용하였으나, 보편적으로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예시(예. IMF 극복,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수습, 코로나 극복 등)와는 조금 동떨어진

일상 생활 장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굴의 의지를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욕구-현실 충돌 상황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나마 실생활 장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 정도를 통해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개인차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련된 방법론을 통해 주체성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 특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인의 행동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예. 김세현, 2023; 허태균, 2015). 한국은 오랜 시간동안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유지해온 나라인 만큼,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과 메커니즘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임을 고려해보면, 앞으로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설명 논리로는 부족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이 아닌 한민족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다문화 시대가 도래하는 시기에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민자들이 한국인으로 편입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적응 문제와 가치관, 사고 방식, 생활 양식 등의 차이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수많은 사회 갈등의 기저에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은 한반도에서 누적된 역사와 문화의 결과물인만큼, 새롭게 한국인으로 편입되는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 둘 간의 괴리가 문화 적응 문제나 사회 갈등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민자들은 토착 한국인에 비해 주체성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태도 혹은 실제 행동에서의 차이는 토착 한국인과 이민자들 간의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측면에서 출발하는 한국인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 양식에 대한 탐구가 지속되어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한국인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기찬 (2017. 10.). 배짱과 불굴의 의지의 5060.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s=00002000040000100009&cid=11235&sel\\_year=2017&sel\\_month=10&pp=20&pg=1](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s=00002000040000100009&cid=11235&sel_year=2017&sel_month=10&pp=20&pg=1)
- 김세현 (2023).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으로서 복합유연성의 역할: 개념화 및 척도 개발과 행동적 기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숙중 (2020. 01. 30). 참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재능 민족이다. 한려투데이.

- <https://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05>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정은, 이수란, 양수진 (2018). 한국형 그릿(Grit) 특성에 대한 고찰: 높은 그릿집단의 다차원적 유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131-151.
- 권태신 (2015. 08. 12). '기업가정신' 다시 살려 새로운 기적 만들자.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799248&pWise=mMain&pWiseMain=G1#celebrity>
- 매거진 한경. (2006. 09. 04.), '하면 된다는 정신 가지면 두려움 없어'.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3037003b>
- 소진광 (2007).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93-112.
- 서진우 (2023. 05. 17). 韓, G7과 비교하니... 혁신·경제·안보서 '미래의 G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38331>
- 심희진 (2023. 05. 11). 굿바이 코로나, 의료진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734089>
- 양정은 (2019). 한국적 집단주의(우리성, *wenness*)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9(5), 1-14.
- 여기선 (2023. 02. 01). [역사속 경제리뷰] 한강의 기적. *파이낸셜리뷰*.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00>
- 유태용, 최정락 (2012). 성격과 직무수행 간의 비선형적 관계: 직무창의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2), 299-324.
- 이누미야, 한 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7-34.
- 이영임 (1998. 01. 05). "한국인 특유정신으로 빠른 위기회복 기대"<LAT>.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312452?sid=104>
- 이현희 (1981). 김좌진의 항일 독립 사상: 전통 사상의 맥락을 중심으로. *나라사랑*, 41, 37-48.
- 정병준 (2006). 한국독립운동과 독립국가 건설의 역사적 의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79-116.
- 좌승희 (2021).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 노벨상 감이다.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 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연구)*, 8(1), 1-32.
- 천혜정 (2017). IMF 외환위기 기억의 사회적 구성: 조선일보의 '금 모으기 운동'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3(2), 359-395.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忍苦)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21-38.
- 허태균 (2015). *어쩌다 한국인*. 중앙북스
- 허태균, 서신화, 김혜진, 양석주, 이종원 (2012). *한국인의 특성 연구보고서*. 한국형경영연구원.
- Alvarez, S. A., & Busenitz, L. W. (2001). The



- entrepreneurship of resource-based theory. *Journal of Management*, 27(6), 755-775.
- Bandura, A., & Cervone, D. (1983). Self-evaluative and self-efficacy mechanisms governing the motivational effects of goal syst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5), 1017-1028.
- Benavides, P., Kvitko, E., Adeclas, J., Kim, S. & Hur, T. (2020).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Relational Agency* [Unpublished Brief report]. Korea University.
- Blatt, S. J., Quinlan, D. M., Chevron, E. S., McDonald, C., & Zuroff, D. (1982).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Psychological dimensions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1), 113-124.
- Brandell, J., & Perlman, F. (1997). Psychoanalytic theory. *Theory and Practice in Clinical Social Work*, 38-80.
- Catalano, R. F., Berglund, M. L., Ryan, J. A., Lonczak, H. S., & Hawkins, J. D. (2002).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Prevention & Treatment*, 3(1), 15a.
- Cho, Y. H., & Yoon, J. (2001). The origin and function of dynamic collectivism: An analysis of Korean corporate culture.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7(4), 70-88.
- Clark, D. A., Beck, A. T., & Brown, G. K. (1992). Sociotropy, autonomy, and life event perceptions in dysphoric and nondysphoric individua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635-652.
- Diel, K., Grelle, S., & Hofmann, W. (2021). A motivational framework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6), 1415-1430.
- Diel, K., & Hofmann, W. (2019). Inspired to perspire: The interplay of social comparison direction and standard extremity in the context of challenging exercising goals. *Social Cognition*, 37(3), 247-265.
- Diochon, M., & Anderson, A. R. (2011). Ambivalence and ambiguity in social enterprise; narratives about values in reconciling purpose and practice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 93-109.
- Donovan, J. J., & Williams, K. J. (1999). *Contextual, Dispositional and Cognitive Influences on Goal Revision*. In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GA.
- Donovan, J. J., & Williams, K. J. (2003). Missing the mark: Effects of time and causal attributions on goal revision in response to goal-performance discrepanc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3), 379-390.
- Funder, D. C. (2008). Persons, situations, and person-situation interaction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568-580). The Guilford Press.
- Gaddefors, J., & Anderson, A. R. (2019). Romancing the rural: Reconceptualizing rural entrepreneurship as engagement with context (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20(3), 159-169.
- Green, E. G., Deschamps, J. C., & Paez, D.

- (2005). Vari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within and between 20 countries: A typological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3), 321-339.
- Hofstede, G. (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1-26.
- Iyengar, S. S., & DeVoe, S. E. (2003). Rethinking the value of choice: Considering cultural mediators of intrinsic motivation. In V. Murphy-Berman & J. J. Berman (Eds.),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perspectives on the self* (pp. 146-191).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Iyengar, S. S., & Lepper, M. R. (2002). Choice and its consequenc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self-determination. In A. Tesser, D. A. Stapel, & J. V. Wood (Eds.), *Self and motivation: Emerg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71-9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ang, H., Reeve, J., Ryan, R. M., & Kim, A. (2009). Can self-determination theory explain what underlies the productive, satisfying learning experiences of collectivistically oriented Korea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3), 644-661.
- Kalberg, S. (2015). *Searching for the spirit of American Democracy: Max Weber's analysis of a unique political culture, past, present, and future*. Routledge.
- LeVine, R. A. (2001). Culture and personality studies, 1918-1960: Myth and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69*(6), 803-818.
- Lowe, J. (2003). The self-reliance of the Cherokee male adolescent. *Journal of Addictions Nursing, 14*(4), 209-214.
- Mo, Y., & Park, H. S. (2023). COVID-19 and public masking compliance in Korea: We-ness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at the individual level. *Health Communication, 38*(6), 1111-1119.
- Nalipay, M. J. N., King, R. B., & Cai, Y. (2020). Autonomy is equally important across East and West: Testing the cross-cultural universality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Adolescence, 78*, 67-72.
- Niles, F. S. (1998). Individualism-collectivism revisited. *Cross-cultural research, 32*(4), 315-341.
- Prentice, D. A., & Carranza, E. (2002). What women and men should be, shouldn't be, are allowed to be, and don't have to be: The contents of prescriptive gender stereotyp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269-281.
- Stuart, D. (1993). *Letter of research support*. Cherokee Nation.
- Taylor, S. E., & Lobel, M. (1989). Social comparison activity under threat: Downward evaluation and upward contacts. *Psychological Review, 96*(4), 569-575.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2), 323-338.
- Triandis, H. C., McCusker, C., Betancourt, H., Iwao, S., Leung, K., Salazar, J. M., ... & Zaleski, Z. (1993). An etic-emic analysi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3), 366-383.
- Weisberg, S. (2005). *Applied linear regression* (Vol. 528). John Wiley & Sons.
- Williams, K. J., Donovan, J. J., & Dodge, T. L.

- (2000). Self-regulation of performance: Goal establishment and goal revision processes in athletes. *Human Performance, 13*(2), 159-180.
- Zhang, Y. B., Lin, M. C., Nonaka, A., & Beom, K. (2005). Harmony, hierarchy and conservat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onfucian values in China, Korea, Japan, and Taiwan.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2*(2), 107-115.
- Zhou, M., Ma, W. J., & Deci, E. L. (2009). The importance of autonomy for rural Chinese children's motivation for learn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4), 492-498.

논문 투고일 : 2023. 10. 02

1 차 심사일 : 2023. 10. 18

게재 확정일 : 2023. 11. 17

## The Role of Relational Agency in a Need-reality Colliding Situation

Seheon Kim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making efforts to overcome the need-reality collision as a cultural characteristic of Koreans. Specifically, we examined whether the behavior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lational agency in the situation where conflicts between one's needs and reality have occurred. To this end, a total of 217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e online experiment, and the data of 156 participants were finally analyzed. After responding to the relational agency scale, the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a decision-making scenario in which conflicting factors existed. The scenario were about buying a house and making a wedding hall contract, and in each scenario, two important values were set to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e market. Participants read the scenario and entered the level they wanted for each value. After that, they encounter a situation in which he or she has not found the candidate site corresponding to the level he or she wants. Then,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ir willingness to make additional efforts themselv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egree of relational agency of the participant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degree of additional effort. In addition, the degree of the desired level beyond the reality (expectancy discrepancy) showed a nonlinear (reverse U-shape) influence on the additional effort while controlling for individual difference. Furthermore,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relational agency and expectancy discrepancy was significant. Specifically, individuals with low agen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expectancy discrepancy and the dependent variable, but individuals with high relational agency had a significant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expectancy discrepancy and the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ole and function of Korean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ional agency) in the scene of managing needs-reality collis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relational agency, needs-reality collision, expectancy discrepancy, additional effort, fortitude